

4개 종단만 운영

종지종풍 정립등 학문적 성과 '미흡'

각 종단 종학연구기구 점검

"당신이 소속된 종단의 종지·종풍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을 불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각 종단별로 종단종풍의 기본틀인 종지·종풍에 대한 개념정립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지(宗旨)란 종파에서 믿고 받드는 중심되는 가르침을, 종풍(宗風)은 각 종교, 종단의 풍습을 각각 의미한다. 따라서 종지·종풍은 종도들의 신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종단 가운데 종지·종풍 체계화에 주력하는 종단은 현재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4곳에 불과하다.

20일 진각종 종학연구실(실장 해정) 개원을 계기로 각 종단의 종학연구를 점검해본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지인심, 견성성불, 진법도생을 종지로 삼고 있다. 94년 개벽종단이 출범하면서 종지와 종풍 연구를 목적으로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가 설립되려 했지만 아직 학문적 성과는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강원총림) 발간으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불학연구소는 불교사 연구·선종사 연구·교종사 연구·종단사 연구·종지/종풍/법계연구·승가교육사연구·선원사

연구·율원사 연구·교화사 연구·사원사 연구·교육정책 연구·경서(불학총서) 간행·승가교육지 발간·승가교육관련 출판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앞으로 종단의 종책적 과제를 뒷받침하고, 종단의 교육사업과 <선원총림> 등의 발간작업을 통해 교육과 수행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종지와 종풍, 법맥 등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계획이다.

천태종 천태불교문화연구원 96년 설립된 이래 두차례의 한·중·일 학술회의를 통해 종풍에 대한 학문적, 교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종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종풍의 마련은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창규 간사는 "종학연구는 포교, 연구, 교육의 상호발전을 도모해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초작업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며 "종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현 대 한국불교 안

선·교종사 법맥 연구
한중일 천태학 교류
종조어록 수행지침서 펴내
소의 경전 번역 완료

내서)라는 진각종 수행법 지침서를 통해 종지·종풍을 명문화하고 있고 그간 종조어록 발간준비, 밀교사건 심의 등에 기여해 온 노력을 볼 때 종학연구실 설립이 세심스러운 일이다. 진각종은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축신성불의 바른 길을 여는 밀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현재 정화를 기하는 승속동행의 재가종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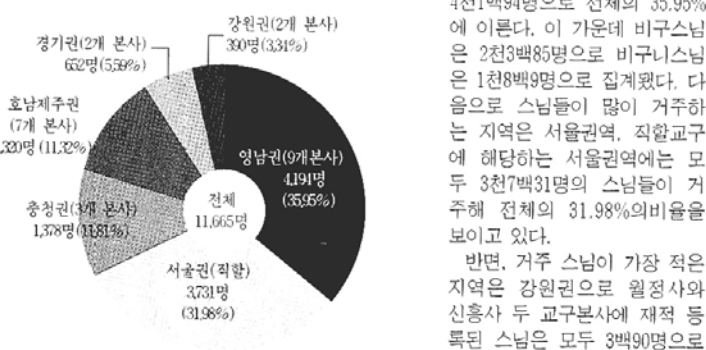


◇진각종은 20일 종학연구실 개원식을 갖고, 종지·종풍의 체계화와 학문적 연구에 들어갔다.

조계종 스님 1만1천6백65명

조계종 소속 스님은 모두 1만1천6백65명이다. 이중 구족계를 받은 비구스님은 3천6백57명(31.36%) 비구니스님은 3천5백71명(30.62%)으로 전체의 6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미는 2천4백56명(21.06%) 사미니는 1천9백79명(16.97%)으로 분석됐다. 또 조계종 스님들이 가장 많이 재적하고 있는 지역은 영남권이며 가장 적게 재적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조계종 총무원이 작년 말까지의 종단 승려현황을 집계해 최근



◇조계종 스님 지역별 재적현황

불교대중학교(교장 도법)와 전국 귀농운동본부가 공동주관하는 장기귀농학교가 실상사에서 8월24일 국내 처음으로 개설된다. 또 서울 영화사와 목동에 유기농산물 직거래매장의 개설과 가칭 '불교도농공동체 추진본부' 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불교와 농촌'이란 두루를 들고 '불교도농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생각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지난 3월28일 불교대중학교 개교를 기점으로 불교계에도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요 인터뷰

장기귀농학교 국내 첫 개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인간-자연 공생의 삶 추구"

불교대중학교의 교육목표가 궁금한 데요. ▲한 마디로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사회, 친환경적인 농업'이 슬로건이자 목표입니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모든 만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존·공생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장기귀농학교를 개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도시에서 일직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를 중심으로 약 2천5백여 가구가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없이 귀농을 한다면 거의 실패하고 다시 한번 삶의 절망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정한 귀농'을 위해서는 현장교육을 통해 이론교육에서 배웠던 농사꾼으로서의 가치와 지식을 현장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8월22일 서울 영화사와 목동에 유기농 직거래매장이 개설되는데요. ▲농촌문제의 해결은 도시 소비자들의 농촌을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가치의 변화와 진지한 활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시 생활을 중심으로 불교생활공동체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의 검출 등 오염된 먹거리를 먹는 인간 생명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유기농 직거래 매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매개로 농촌사찰과 도심사찰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 가칭 '불교도농공동체 추진본부'의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추진본부는 불교대중학교, 장기귀농학교, 불교생활, 직거래매장 등의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본부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들의 농업·농촌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동시에 불교 농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하나되는 불교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정·종단이나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정부는 농촌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민족구성원의 생명존중, 식량안보·국토의 황폐화문제(북한 포함)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종단과 사찰들은 불교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활용, 농촌문제 해결을 통해 생명사상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인식전환을 요청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실직자 현장경험은 준비된 귀농 이끌죠

농업·농촌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동시에 불교 농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하나되는 불교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종단이나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정부는 농촌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민족구성원의 생명존중, 식량안보·국토의 황폐화문제(북한 포함)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종단과 사찰들은 불교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활용, 농촌문제 해결을 통해 생명사상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인식전환을 요청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실직자 현장경험은 준비된 귀농 이끌죠

농업·농촌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동시에 불교 농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하나되는 불교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종단이나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정부는 농촌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민족구성원의 생명존중, 식량안보·국토의 황폐화문제(북한 포함)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종단과 사찰들은 불교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활용, 농촌문제 해결을 통해 생명사상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인식전환을 요청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실직자 현장경험은 준비된 귀농 이끌죠

농업·농촌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동시에 불교 농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하나되는 불교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종단이나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정부는 농촌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민족구성원의 생명존중, 식량안보·국토의 황폐화문제(북한 포함)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종단과 사찰들은 불교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활용, 농촌문제 해결을 통해 생명사상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인식전환을 요청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실직자 현장경험은 준비된 귀농 이끌죠

농업·농촌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동시에 불교 농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하나되는 불교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종단이나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정부는 농촌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민족구성원의 생명존중, 식량안보·국토의 황폐화문제(북한 포함)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종단과 사찰들은 불교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활용, 농촌문제 해결을 통해 생명사상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인식전환을 요청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실직자 현장경험은 준비된 귀농 이끌죠

농업·농촌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동시에 불교 농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하나되는 불교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종단이나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정부는 농촌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민족구성원의 생명존중, 식량안보·국토의 황폐화문제(북한 포함)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종단과 사찰들은 불교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활용, 농촌문제 해결을 통해 생명사상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인식전환을 요청합니다.

목어

부처님께서 사위국 정사에 계실 때였다. 새로 출가한 4명의 비구가 망고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다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말을 주고 받았다.

"은갖 꽃이 피었을 때 들에 나가 노닐면 가장 즐겁다. 가족이 모여 술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며 가무를 즐길 때, 재물을 많이 모아 갖고 싶은 것을 다 손에 넣고 거마 복식이 특이해서 마음껏 사랑할 때 가장 즐겁다."

부처님께서 이들 비구들의 생각이 안이비 살신의 육근에서 생기는 것까지 욕망으로 달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렀다.

"너희들의 말은 다 멸망의 길일뿐이다. 꽃은 시들어 떨어지며, 가족끼리의 즐거움은 반드시 이별을 수반한다. 재물과 거마는 가난의 한 부분이며, 미인은 애증을 낳는 주인공일 따름이다. 범부들의 고통이 다 육근의 욕심 때문이다."

그러기에 비구가 세속을 버리고 불도를 구하여 생각을 진실(무위)에 두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법구비유경>에 있는 말씀이다.

부은사 주지자리

다. 조계종 총무원은 빈자리를 바라보만 있지 말고 조속히 주지를 임명해야 한다.

부은사 주지 문제가 더이상 시끄러워 지면 전법에는 커녕 스님들과 불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된다. 그래도 좋다면 그전 불제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불제자가 아니라면 어찌 주지가 될 수 있고 신도가 될 수 있던 말인가.

불제자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다시 읽자. 명쾌한 답이 거기 있다.

부은사 주지자리

다. 조계종 총무원은 빈자리를 바라보만 있지 말고 조속히 주지를 임명해야 한다.

부은사 주지 문제가 더이상 시끄러워 지면 전법에는 커녕 스님들과 불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된다. 그래도 좋다면 그전 불제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불제자가 아니라면 어찌 주지가 될 수 있고 신도가 될 수 있던 말인가.

부은사 주지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다시 읽자. 명쾌한 답이 거기 있다.

부은사 주지자리

한문천재사회종합박사전 130권 특별할인판매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36만가지 내용을 집대성한 살아있는 도서관」

1. 한석봉 천자문	14. 해, 달 구제원전	27. 예기	40. 왕헌지필법	53. 장수, 육어탈	66. 침술과 뜸	79. 일영 강화자전	92. 빛을남긴 장군	105. 태평삼국사기	118. 자료 인명록
2. 기초여행	15. 삼라만상 원경	28. 예기	41. 황산곡필법	54. 무병장수 산초	67. 월에·난·분재	80. 일영 강화자전	93. 임진왜란 작전	106. 난세삼국사기	119. 시조·종시조
3. 여행회화	16. 사자소화	29. 춘추	42. 현대의화	55. 무병장수 분초	68. 사계절 꽃꽂이	81. 신도불이 365일	94. 임진왜란 항쟁	107. 난세삼국사기	120. 국사오전년
4. 10개국 1800자	17. 소화	30. 고전미술	43. 종합스포츠	56. 신사업담 예절	69. 관상·수상·역술	82. 한국 전쟁사	95. 임진왜란 의병	108. 삼국사기	121. 나의부리 족보
5. 한문 1800자	18. 소화	31. 명품 휘호, 명필	44. 세계풍습, 관광	57. 효도하는 길	70. 동양철학	83. 한국 전쟁사	96. 난중일기	109. 국사 인물총람	122. 나의부리 족보
6. 6세 천자문	19. 대학	32. 진품 명적서도	45. 특수지압	58. 화술과 대화	71. 가례식	84. 인천상륙작전	97. 난중일기	110. 국사 인물총람	123. 성씨총람
7. 한문 펜글씨	20. 중용	33. 왕희지필법	46. 미용맞사지	59. 명연설 최명연	72. 신강회자전	85. 인천상륙작전	98. 임진왜란 일기	111. 국사 인물총람	124. 성씨총람
8. 동몽선승	21. 논어	34. 왕희지필법	47. 동의한방보감	60. 소기업, 대기업경영	73. 신강회자전	86. 함전 16개국	99. 통일삼국사기	112. 국사 인물총람	125. 성씨총서
9. 계몽편	22. 맹자	35. 장공예필법	48. 동의한방처방	61. 21세기 경영	74. 신강회자전	87. 함전 16개국	100. 통일삼국사기	113. 국사 인사대관	126. 성씨총서
10. 명심보감	23. 시경	36. 당대중필법	49. 동의한방비방	62. 생활법률 백과	75. 한중 강화자전	88. 함전 16개국	101. 천하삼국사기	114. 국사 인사대관	127. 성씨대관
11. 서예기본	24. 시경	37. 조자양필법	50. 동의한방노초	63. 어음·수표법	76. 한중 강화자전	89. 독립운동사	102. 천하삼국사기	115. 국사 인사대관	128. 성씨대관
12. 일행어사, 육새	25. 서경	38. 송고종필법	51. 동의한방노초	64. 사법부부 백과	77. 한중 강화자전	90. 빛을남긴 장군	103. 태평삼국사기	116. 국사 인사명록	129. 성씨대관
13. 명필예제자강	26. 주역	39. 제갈량필법	52. 동의한방노초	65. 입심과출산	78. 일영 강화자전	91. 빛을남긴 장군	104. 태평삼국사기	117. 자료 인사명록	130. 성씨대관

문학사업수입금 전액을 독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한정부수 1000세트 한정부수 초과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한문천재 사회종합박사전 130권 ₩168,000원

국사오전년서, 인물오전년서, 미술오전년서, 인문명필회오전년서, 가정생활이벤트오전년서, 책임감수 안호상 박사, 유정기 박사, 구본홍 박사, 이강훈(전광복회 회장) 김민희 박사, 홍문호 박사 정가: 880,000원 현금기: 168,000원 (02) 231-7323~5 선비고을